

ICT산업 2021년 2분기 동향

- I. 반도체
- II. 디스플레이
- III. 휴대폰

작성

선임연구원 이미혜 (6252-3608)





< 요약 >

(반도체) 2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PC 수요, 데이터센터의 구매 확대, 수요 기업의 가격상승 등에 대비한 재고 축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% 성장

- 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0.9% 증가한 241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3.5% 증가한 164억 달러 기록
- (가격) D램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5% 상승, 낸드플래시 가격은 수요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8.6% 상승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2.6% 하락
- (수출) 2분기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전년동기 기저효과, PC 및 서버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9.3% 증가한 307억 달러 기록

(디스플레이) 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견조한 IT패널 및 프리미엄 TV 수요, 스마트폰 수요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4% 성장

- (세계시장) LCD 시장은 노트북 등 IT패널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6% 성장, OLED 시장은 스마트폰·TV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0% 성장
- (가격)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4분기 연속 상승,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 가격은 중국 생산 확대 등으로 2분기 연속 하락
- (수출)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바일·TV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.3% 증가한 54.0억 달러 기록

(휴대폰)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한 전년동기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.2% 증가, 전분기 대비 9.3% 감소한 3.1억대 기록

- (세계시장) 세계 전 지역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했으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부족,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% 역성장
- (시장점유율) 삼성전자는 1위를 수성, 샤오미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했으며 삼성전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1.9%p로 좁혀짐
- (수출) 2분기 휴대폰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, 부품 재고확보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.4% 증가한 31.5억 달러 기록



I. 반도체

(세계시장) 2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PC 수요, 데이터센터의 구매 확대, 수요기업의 가격상승 등에 대비한 재고 축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% 성장

- 2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0.9% 증가한 241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3.5% 증가한 164억 달러 기록
- PC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코로나19 장기화, 1인 1PC 사용 등에 따른 견조한 PC 수요, 수요기업의 메모리반도체 가격상승 등에 대비한 재고 축적 등으로 증가세 유지
 - 2분기 PC 수요는 코로나19 발생전보다 높은 수준이나 PC 출하량 증가율은 비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둔화됨
 - * PC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): (1분기)35.7% → (2분기)4.6% (가트너)
-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인텔과 AMD의 신규 서버용 CPU인 Ice Lake와 밀란(Milan) 출시, 데이터센터의 구매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
-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스마트폰 생산기지가 위치한 인도, 베트남 등의 코로나 19 재확산, 비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면서 악화됨
 - *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생산 능력 제약, 차량용 반도체 우선 생산 등으로 비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지속

세계 D램 시장규모



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



자료: Trendforce.



(가격) D램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5% 상승, 낸드플래시 가격은 수요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8.6% 상승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2.6% 하락

- D램 가격은 1분기부터, 낸드플래시 가격은 2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
- D램 가격은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2020년 3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 1분기에 상승세로 전환,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26.7% 상승
- 낸드플래시는 수요증가, 공급과잉 완화 등으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8.6% 낮은 수준
- 3분기는 전통적 성수기로 서버 수요 증가 등으로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3~8%,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분기 대비 5~10% 상승 전망
-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수요처의 보유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버 수요 증가,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, 반도체기업의 낮은 재고 수준 등으로 3분기에도 가격상승세 지속 전망
 - (PC용) 비메모리반도체 공급부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부품 대비 D램 재고(약 8~10주)가 많아 가격 상승 모멘텀이 약화됨
 - (서버용) 미국, 중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높은 D램 재고 수준(8주 이상)에도 불구하고 2nd Tier 클라우드 사업자와 반도체회사의 낮은 재고수준, SSD(Solid State Drive)¹⁾ 수요 증가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예상
 - (모바일용) 주요 기업은 2분기 스마트폰 생산차질로 메모리반도체 재고가 증가했으나 3분기에 주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전망

D램 가격



낸드플래시 가격



주: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(PC용)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(메모리카드/USB용) 고정거래 가격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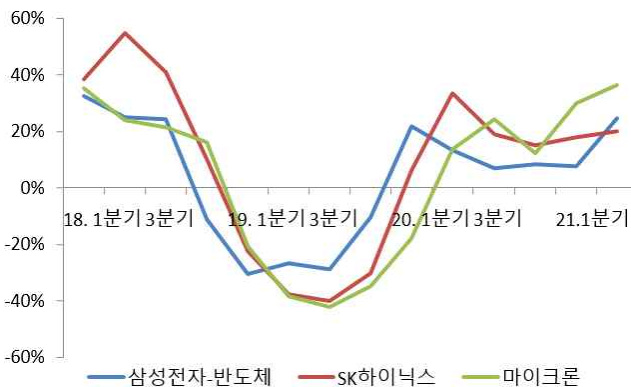
자료: Trendforce.

1) 낸드플래시가 주요 부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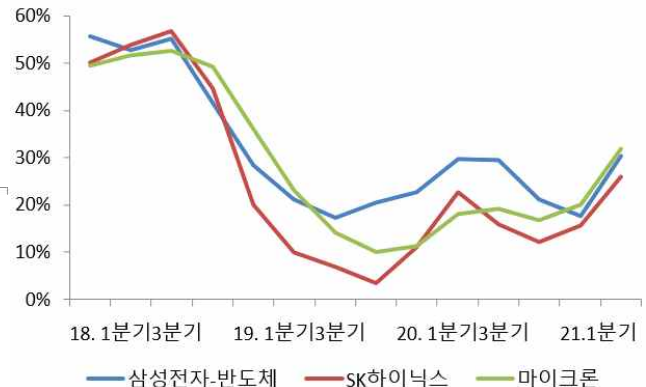
(기업) 주요 메모리반도체기업은 반도체 가격 상승, 최신 공정 제품 비중 증가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됨

-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0% 이상 증가
 -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5% 증가한 22.7조원, 메모리반도체 매출 (매출 비중 79%)은 전년동기 대비 22% 증가한 17.9조원을 기록
 -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예상보다 높은 D램 출하량과 메모리반도체 가격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%, 전분기 대비 24% 성장
 -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미국 파운드리 공장 정상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% 증가
 - *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은 한파로 인한 정전 등으로 2월 16일부터 가동중단됐으나 6주 뒤인 3월말에 정상 가동됨
 - SK하이닉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0%, 전분기 대비 22% 증가한 10.3조원 기록
 - 메모리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3년만에 분기 매출 10조원 이상 기록
-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, 수율(양품 비율) 향상 등으로 26% 이상 기록
 -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8% 증가, 영업이익률은 30.5% 기록
 - D램중 1z나노²⁾ 비중은 1분기 17%에서 2분기 22%로 상승
 -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인건비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38% 증가, 영업이익률은 26.1% 기록
 - SK하이닉스는 D램 1y나노, 1z나노, 낸드플래시 128단 매출 비중 확대로 원가절감 달성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, 마이크론의 1분기는 12~2월 기준.
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2) D램 10나노대 미세공정은 공정기술 발달에 따라 1세대 1x, 2세대 1y, 3세대 1z, 4세대 1α로 진화

(수출) 2분기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전년동기 기저효과, PC 및 서버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9.3% 증가한 307억 달러 기록

- 메모리반도체 수출(수출 비중 65%)은 전년동기 대비 21.2% 증가한 200억 달러,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8.0% 증가한 107억 달러 기록
- 메모리반도체 수출³⁾은 D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7.3% 증가한 91억 달러, 낸드플래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.8% 증가한 16.8억 달러 기록
-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¹⁾의 수주 확대* 등으로 증가

*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- 대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5.2%,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4.0% 증가

* 반도체 수출 국가별 비중('21.1분기): 중국 62%, 베트남 10%

- 대중국 수출은 2020년 3분기부터 회복되었으며,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반도체 수요 등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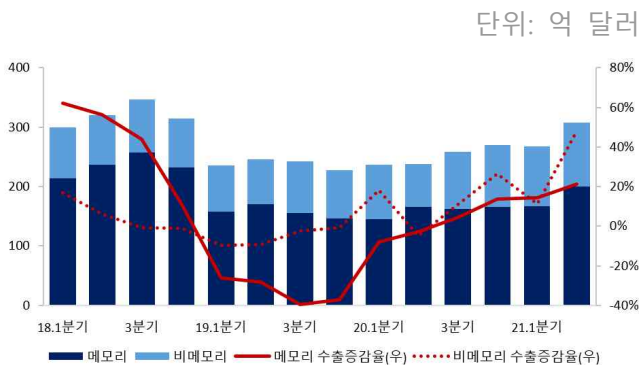
* 대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: ('20.3분기)2.8% →(4분기)11.0% →('21.1분기)12.0% →(2분기)25.2%

- 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2020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상승,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전년동기 대비 21.9% 상승

* 반도체 수출물가지수: ('20.2분기) 82 →(3분기) 76 →(4분기) 68 →('21.1분기) 69 →(2분기) 79

* 반도체 수출물량지수: ('20.2분기)219 →(3분기)249 →(4분기)266 →('21.1분기)262 →(2분기)267

반도체 수출액 추이



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1)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광·개별소자(LED 등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)를 포함.

2)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3)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D램, 낸드플래시, 메모리MCP(Multi Chip Package)으로 분류. MCP는 2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적층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며 메모리MCP는 스마트폰에 탑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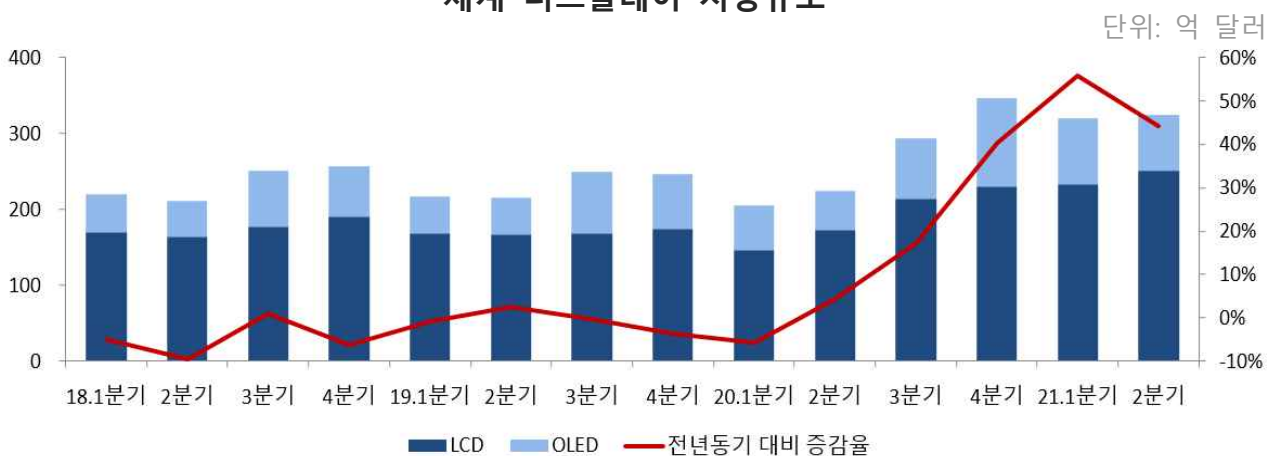


II. 디스플레이

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견조한 IT패널 및 프리미엄 TV 수요,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4% 성장

- (LCD) LCD 시장은 IT패널(노트북, PC 모니터 등) 수요 증가, LCD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6%, 전분기 대비 8% 증가
 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체류시간 증가, 1인 1 PC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IT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%, TV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.4% 증가
 - 미국, 중국 외 다수 국가의 TV 수요는 증가했으나,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 및 외부 활동 증가, 중국은 패널 가격 상승 등에 따른 TV 가격 인상 등으로 수요 약화
 - TV 제조사는 부품 공급 부족(디스플레이구동칩(DDI) 등) 등으로 고부가 TV 생산에 집중
 - LCD TV 패널 가격은 부품 공급부족 등으로 상승세 지속
- (OLED) OLED 시장은 스마트폰 및 TV 수요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0% 성장
 - 스마트폰용 OLED 시장(매출 비중 71%)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 및 OLED 패널 탑재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5% 성장
 - TV용 OLED 시장은 LCD와 OLED TV 패널 가격 격차 축소, LCD TV 패널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TV 제조사의 OLED TV 패널 구매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59% 성장
 - * OLED용 디스플레이구동칩은 LCD 디스플레이구동칩 대비 상대적으로 공급부족이 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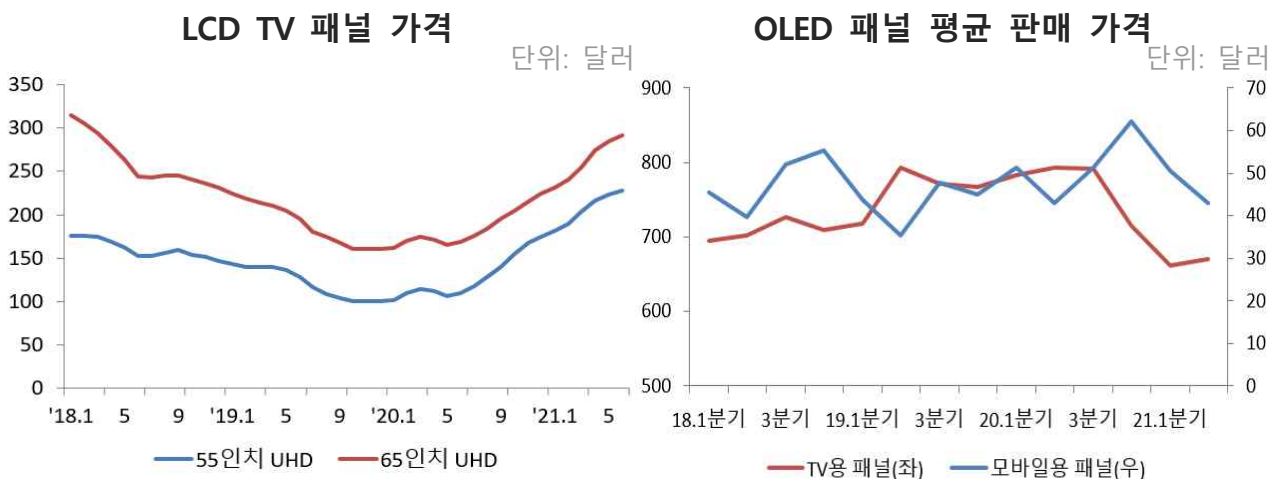
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



자료: 옴디아.

(가격) LC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4분기 연속 상승,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 생산 확대 등으로 2분기 연속 하락

- (LCD) LCD TV 패널 가격은 2020년 3분기부터 TV 수요 증가, 한국기업의 LCD사업 구조 조정, 2021년 1분기부터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상승하면서 1년간 상승세 지속
 - 한국 디스플레이기업이 중국의 공격적인 LCD 생산능력 확대 및 가격하락 등으로 2020년 말에 국내 LCD 사업 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TV 제조사는 LCD 공급부족을 우려했음
 - 현재 한국기업은 LCD 수요증가, 가격상승이 지속되자 LCD 구조조정 시기 재검토중
 - 디스플레이 구동칩(DDI)은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(파운드리)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난 해소 등을 위해 생산 우선 순위를 조정함에 따라 공급부족 지속⁴⁾
 - 2분기 55인치 UHD(Ultra High Definition, 4K 해상도) TV 패널 가격은 수요증가, 부품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% 상승
- (OLED)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5% 하락, 모바일용 OLED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0.6% 상승
 - OLED TV 패널은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으며, 동사의 중국 공장 생산량 증가, 가격이 낮은 48인치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평균 판매 가격 하락
 - LG디스플레이의 중국 OLED 공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본격화했으며, OLED TV 패널은 55인치 이상 대형 패널 중심이었으나 코로나19로 48인치 게임용 및 세컨드 TV 수요 증가
 -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고부가 패널을 탑재하는 아이폰12 출하량 감소 등으로 2분기 연속 하락



자료: 옴디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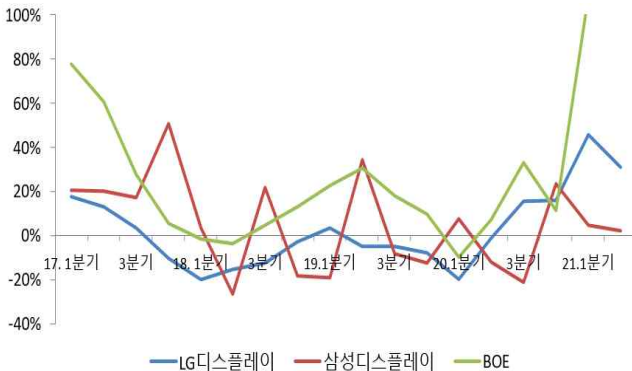
4) 대형 패널용 DDI는 8인치 웨이퍼, 모바일용 DDI는 12인치 웨이퍼에서 주로 생산하며,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 웨이퍼 팹 사용 비중이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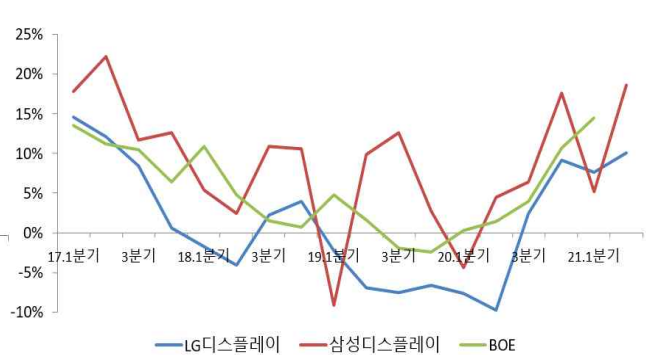
(기업) 2분기에는 TV·IT기기 패널 매출 비중이 높은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OLED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디스플레이보다 높은 매출증가율을 기록

- (LG디스플레이)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1% 증가한 7.0조원을 기록, 영업이익은 2020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실적 부진에서 탈피
 - 패널 출하면적은 중대형 패널 수요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% 증가, 면적당 판가는 TV용 OLED 패널 출하 증가, LCD 패널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% 상승
 - * 2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: IT 패널 39%, TV 38%, 모바일·기타 등 23%
 - 영업이익은 LCD 가격 상승, OLED TV 패널 손익 개선 등으로 4분기 연속 이익 달성
 - * LCD TV 패널은 Open cell(백라이트(BLU) 미부착상태) 판매 비중이 90% 이상이나 IT패널은 LCD 모듈로 판매되는 비중이 50% 내외로 매출과 수익성이 높음
- (삼성디스플레이) 2분기 매출은 중소형 OLED 패널 비수기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업의 OLED 선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% 증가한 6.9조원 기록
 - OLED(매출비중 90% 중반) 매출은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, LCD 매출은 LCD 생산라인의 QD OLED로 전환* 등에 따라 매출 감소
 - * QD OLED 라인은 2021년 4분기 양산 예상
 - LG디스플레이는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WOLED(White OLED), 삼성디스플레이는 청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쿼텀닷(양자점) 컬러필터를 적용한 QD OLED 방식 사용
 - 영업이익은 판가 상승, 애플의 일회성 보상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 ('20.2분기 0.3조원→'21.2분기 1.3조원)
 -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전용 공장을 운영중이며, 아이폰은 매년 3분기에 신모델을 출시하여 2분기 판매량은 부진. 애플은 계약된 최소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3번째 보상금 지급.
 - * 애플의 일회성 보상금 추정 규모: ('19.2분기)0.77조원 →('20.2분기)1조원 →('21.2분기)0.5조원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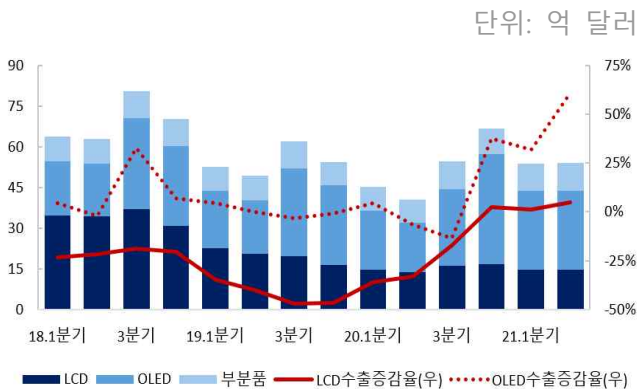


주:1) 삼성디스플레이의 2019년, 2020년, 20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애플의 보상금 반영.
2) 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.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.

(수출)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모바일·TV용 OLED 패널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.3% 증가한 54.0억 달러 기록

-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1% 증가한 29.3억 달러,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한 14.5억 달러 기록
- OLED 수출은 2019년 3분기부터 LCD 수출을 추월했으며, 2021년 2분기에는 스마트폰 및 TV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성장
- LCD 수출은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
- 주요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과 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이 각각 50%, 23% 증가
 - * 국별 디스플레이 수출비중('21.2분기): 베트남 47%, 중국 44%
- 베트남은 OLED 최대 수출대상국(비중 68%)이며 한국기업의 스마트폰·TV 생산기지로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7% 증가
- 대중국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%, OLED 수출은 39% 증가
-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88으로 전년동기 대비 24% 상승했으나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전년동기 대비 22% 하락
-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는 LCD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44% 하락 하면서 하락세 지속
 - *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: ('20.2분기)71 →(3분기)73 →(4분기)79 →('21.1분기)83 →(2분기)88
 - *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: ('20.2분기)33 →(3분기)37 →(4분기)31 →('21.1분기)26 →(2분기)25

디스플레이 수출액



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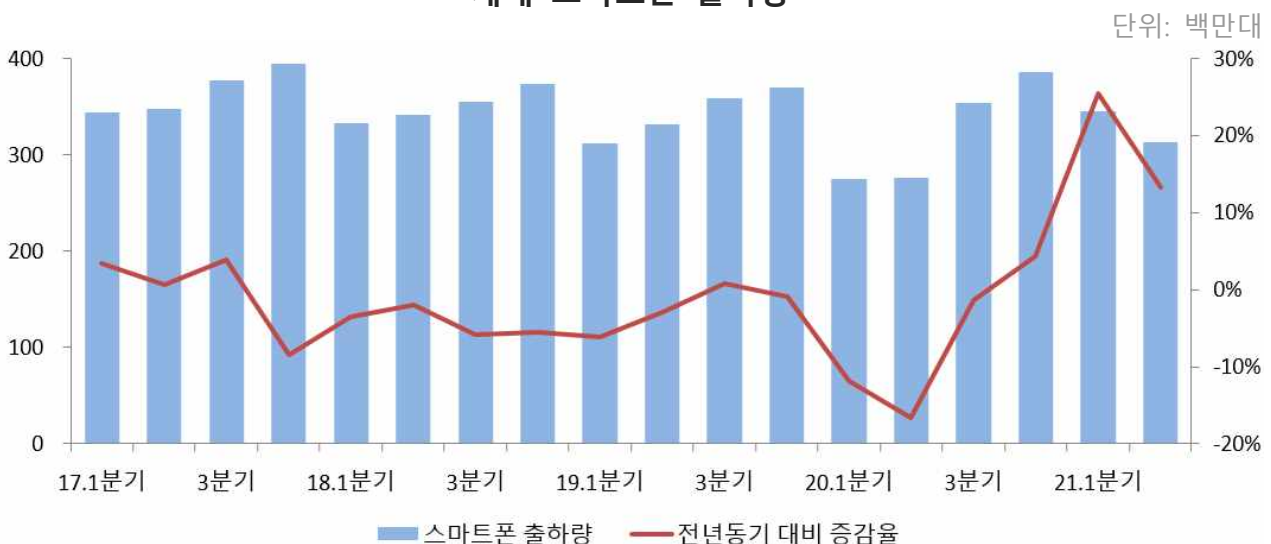


Ⅲ. 휴대폰

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한 전년동기의 기저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.2% 증가, 전분기 대비 9.3% 감소한 3.1억대 기록

- (수요) 세계 전 지역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했으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감소, 미국의 화웨이의 제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0% 역성장
-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한 전년동기의 기저효과, 전년대비 완화된 지역봉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5.8% 증가
 - *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: ('20.2분기)△50.6%→('21.1분기)18.0%→(2분기)85.8%
-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% 증가한 영향과 3분기에 출시되는 신모델 대기 수요, 프리미엄 시장에서 화웨이의 공백 등으로 역성장
-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비보, 오포가 프리미엄폰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
 - *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: ('20.2분기)△10.3%→('21.1분기)30%→(2분기)△10.0%

세계 스마트폰 출하량



자료: IDC.

- (공급) 스마트폰 출하량은 우호적 수요환경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급 부족, 아시아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9.3% 감소
- 스마트폰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대비 공급이 양호했으나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AP(Application Processor), 디스플레이구동칩(DDI), 전력관리반도체(PMIC) 등 공급부족 발생
 - 파운드리 생산능력 제약,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려는 주요 스마트폰 기업의 부품 구매 확대, 주요 파운드리의 차량용 반도체 우선 생산 추진 등으로 일부 부품 공급부족 발생
 - 텍사스 한파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이 발생했으며(2월), 시장조사기관 Trendforce는 동 사건으로 2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5% 감소할 것으로 예상⁵⁾
 - *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퀄컴의 5G 무선통신칩, OLED 디스플레이구동칩 등을 생산
- 삼성전자는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2% 감소, 애플은 인도 공장 생산 차질 등으로 전분기 대비 20% 감소
- 인도는 4월부터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자 봉쇄령을 내렸으며,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의 인도 공장은 1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

주요 스마트폰 부품 및 공급부족 수준

부품		주요 공급사	위탁생산 비중	'21.상반기 공급부족 수준 ¹⁾
AP/SoC ²⁾	프리미엄 5G	애플, 퀄컴, 미디어텍, 삼성전자	100%	●●
	메인스트림 5G	퀄컴, 미디어텍, 삼성전자	100%	●
	4G	퀄컴, 미디어텍, UniSoc	100%	●●●
RFIC/FEM ³⁾		퀄컴, 미디어텍, Qrovo, 스카이웍스	70%	●
이미지센서	12백만화소 이상	소니, 삼성전자, 옴니비전	30%	●
	2/5/8백만 화소	삼성전자, 옴니비전, Galaxycore	50%	●●
디스플레이구동칩(DDI)/TDDI ⁴⁾		삼성전자, 마그나칩, 노바텍	30%	●●●
전력관리반도체(PMIC)		퀄컴, 미디어텍, 삼성전자, TI	50%	●●●●

주: 1) ●는 수요가 공급보다 10% 높은 경우
 2) SoC는 System on Chip으로 여러 기능의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반도체.
 3) RFIC는 Radio Frequency IC로 무선통신용 반도체, FEM은 Front End Module.
 4) TDDI는 Touch-and-Display Driver Integration으로 터치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통합.
 자료: 카운터포인트.

5) Trendforce, 'Impaired Shipment of Qualcomm 5G RFIC Expected to Lower 2Q21 Smartphone Production by About 5%', 2021.3.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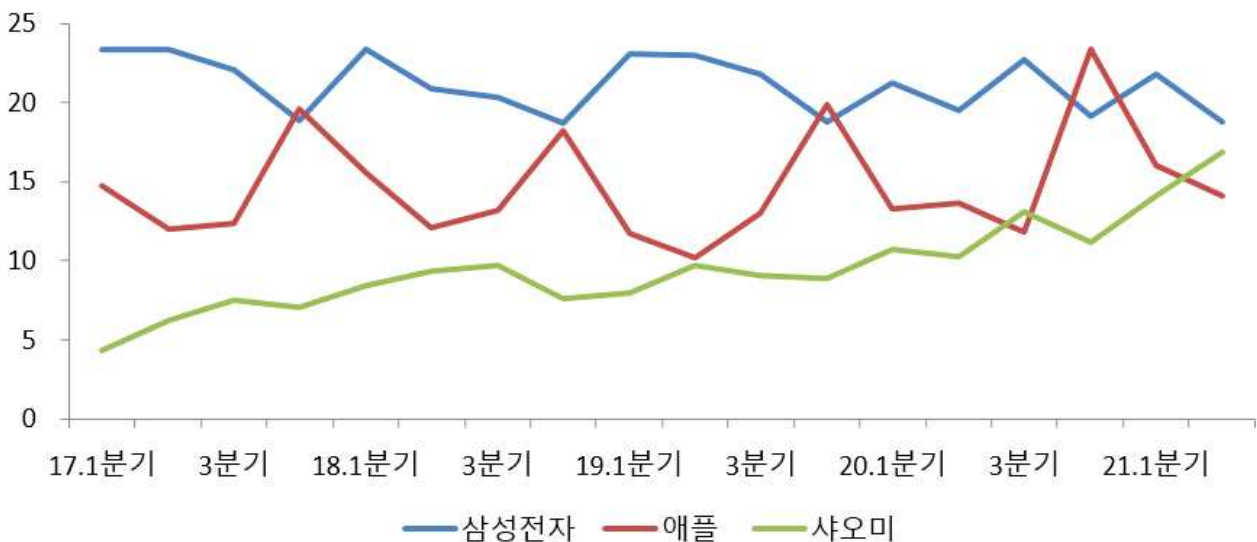
(시장점유율) 삼성전자는 1위를 수성, 샤오미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했으며 삼성전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1.9%p로 좁혀짐

* 2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: 삼성전자 18.8%, 샤오미 16.9%, 애플 14.1% 순

-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9.3% 증가, 시장점유율은 18.8% 기록
 - 1월에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(갤럭시S21)의 신모델 효과 약화로 판매량 감소, 삼성전자의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생산차질 등이 영향을 미침
 -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·인도·동유럽 등의 판매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86.8% 증가, 시장점유율은 16.9%로 확대
 - 샤오미는 중국 3위, 인도 1위 기업으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47%,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84.0% 증가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
 - 샤오미는 미국의 제재 강화로 화웨이가 몰락하자 중국내 화웨이의 중저가폰 시장을 잠식
 -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3분기에 출시되는 아이폰13 대기수요 등으로 아이폰12 등의 수요가 약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7.6% 증가, 시장점유율은 14.1% 기록
 - 애플은 공급망 관리 역량 등으로 타사 대비 부품 공급 부족이 심각하지 않았으며, 중국 생산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음
- * 아이폰12는 2020년 4분기에 출시되었으나 충성도 높은 고객, 연 1회 신모델 출시 등으로 갤럭시폰 대비 신모델 효과가 상대적으로 김

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

단위: %



주: 출하량 기준.
자료: IDC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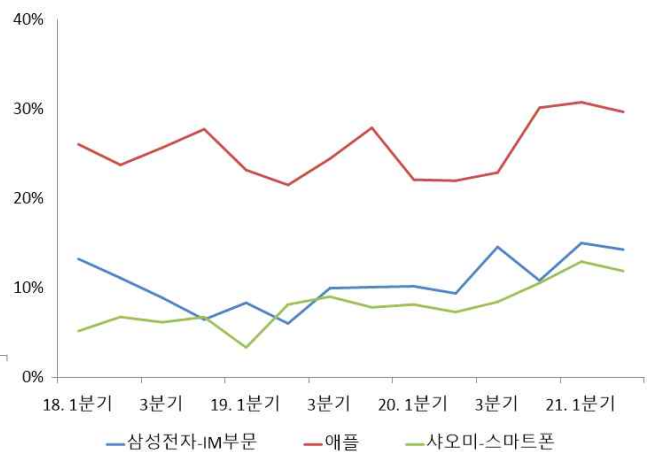
(기업)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9% 증가했으나 애플과 샤오미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50% 이상 증가하면서 위기감이 커짐

- 삼성전자 IM(IT & Mobile Communication)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9% 증가
 -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원가구조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6% 증가, 영업이익률은 14% 기록
-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은 아이폰12 판매호조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9.8% 증가
 - 아이폰 매출은 평균 판매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9.8% 성장,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
 - 2020년 4월에는 아이폰 중가 모델 아이폰SE가 출시되어 평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음
- 샤오미의 스마트폰 매출은 화웨이의 공백 등으로 중국, 인도, 동유럽 등에서 선전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86.8% 증가,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
 - 샤오미는 중고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과거대비 높아짐

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



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주: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(부문별 영업이익 미발표).
자료: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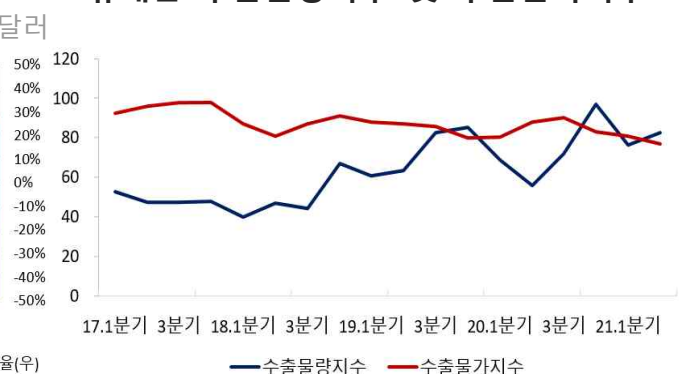
(수출) 2분기 휴대폰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, 부품품 재고확보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.4% 증가한 31.5억 달러 기록

- 부품품 수출(비중 56%)은 고부가 부품 수출 증가, 부품 재고확보 수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1.6% 증가, 3분기 연속 증가세 유지
- 부품품 수출은 국내 스마트폰 기업의 완제품 해외 생산(90% 이상), 5G폰 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
- 완제품 수출은 미국 등에서 판매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35.6% 증가
-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(홍콩포함), 베트남, 미국 수출은 각각 74%, 10%, 40% 증가
- 대중국 수출은 부품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01% 증가, 대베트남 수출은 부품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.2% 증가
- 대미국(완제품 수출비중 55%) 수출은 완제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6% 증가
- 2분기 휴대폰 수출물가지수(2015=100)는 스마트폰 고사양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% 하락한 77을 기록, 수출물량지수(2015=100)는 전년동기 대비 48% 상승
- * 휴대폰 수출물가지수: ('20.2분기)88 →(3분기)90 →(4분기)83 →('21.1분기)81 →(2분기)77
- * 휴대폰 수출물량지수: ('20.2분기)56 →(3분기)72 →(4분기)97 →('21.1분기)78 →(2분기)83

휴대폰 수출액



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



주: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=100, 원화 기준.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.